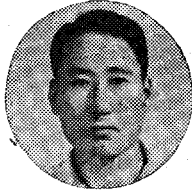


特許制度의 國際化



金 濟 華

〈調達廳 市場調査擔當官室事務官〉

特許의 國際化時代를 마지하여 外國에서의 特許取得은 輸出商品이나 技術을 保護하는 必須條件이다. PCT (特許協力條約)에 의해 各國에 대한 特許出願이 相當히 容易하게 되었으며 또한 1883년의 파리協約締結 以來의 大革命이라 할 수 있다.

PCT는 특허출원이나 節次에 관한 審査方法을 國際的으로 統一함에 따라 특허출원의 合理化와 各國 特許機關의 努力輕減을 目標로 1970년에 採擇되었으며 今年 1월에 發効되어 지난 6월 1일부터 加盟 18個國에서는 受理가 始作되었다.

現在까지 PCT加盟國은 美國, 英國, 프랑스, 西獨, 蘇聯 등 先進 9個國과 브라질, 콩고 등 開發途上國 9個國, 合計 18個國이다.

PCT에 의한 첫째 利點으로서는 1회의 國際出願으로 複數國家에 出願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各國의 特許機關에 直接 別途로 出願하던 것에 比하면 出願者의 努力이 大幅的으로 輕減된 것이다.

또한 權威 있는 國際調査機關이 出願內容에 대해서 국제적인 조사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 하겠다. 이 조사에서는 美國, 西獨, 日本 등 主要 6機關에서 1920年 이후에 刊行된 特許文獻을 조사하여 關聯되는 先行技術을 조사해 주며 그 내용은 國際調査報告書로서 出願人에게도 送達하여 주기 때문에 출원인은 이를 참고하여 출원여부를 決定할 수가 있다.

또한 詳細한 조사를 원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은 國際豫備審査를 請求한다.

국제조사가 단지 선행기술을 列擧하는데 대해서 이곳에서는 출원의 新規性 및 進歩性에 까지 깊이 파고 들어 조사하여 보고해 주며 調査結果는 各國의 特許機關으로 發送하여 特許權을 부여할 때 參考資料로서도 活用된다.

또한 각국에 대한 翻譯文의 提出期限도 原則的으로 출원으로부터 20個月 이내인데 이는 종전의 각국의 루트에 比해서 8개월의 餘裕를 갖는다.

번역은 費用面이나 努力面에 있어서 큰 作業인데 8개월의 餘裕가 있으므로 출원인은 그만큼-특허의 必要性을 充分히 確認할 수 있으므로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웃 日本의 경우를 보면, 各企業의 特許擔當者들은 새로운 제도의 利點을 可能な 限 抽出하여 自己企業의 特許戰略에 寄與하려고 活躍하고 있는데 컴퓨터通信機 메이커인 富士通에서는 接受가 始作된다면 즉시 PCT에 출원하고 싶다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意欲의이다. 同社에서는 海外에 年間 約 250件을 출원하여 約 30個國에 出願하고 있는 기술이나 제품을 保護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開發途上國을 中心으로 輸出國數도 增加될 傾向에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 대한 特許出願은 大幅 簡素化하는 PCT에 의한 혜택은 크다고 할 것이다.

大企業에 比해서 外國特許에 익숙치 못한 中少企業에 있어서도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檢討해 볼만한 價値가 크다고 하며 日本國內出願件數에 차지하는 中少기업의 出願比率는 50%이나 이것이 外國에 대한 출원이 되고 보면 20%가 減少된다고 하는데 그 理由로서는 大部分의 경우 국제출원에 있어서 複雜한 절차와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써 출원을 해도 기업의 調査能力이 약하기 때문에 外國에서 특허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의 判斷이 어려우므로 PCT를 利用하게 되면 우선 日本語로 출원하고 20개월 이내에 자기가 희망하는 國家에 번역문을 제출하면 된다.

그 期間안에 국제조사에 의해 過去에 어떠한 文獻이 있는가를 기재한 報告書가 보내오므로 이를 參考하여 출원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日本 特許廳에서도 이 국제조사를 pilot로 하여 中少기업도 積極的으로 外國特許를 取得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優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中少기업이 PCT를 잘 이용하여 출원을 바라고 있다.

PCT가 이용된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各國의 루트는

그대로 남게 되는데 유럽에서는 유럽特許廳이 條約締結國의 특허를 일괄하여 주는 EPC(유럽特許協約)에 의한 접수가 지난 6월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여 指定된 유럽각국의 특허를 일괄하여 취득할 수도 있다.

한편 이제부터는 어느 국가의 특허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 複數의 출원루트가 併存하게 되는데 가령, 日本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럽과 美國에 국제출원을 하려고 할 경우에 있어서는 4個의 루트를 생각할 수가 있다.

- ① 종전과 같이 各國別로 출원한다.
- ② 모두 PCT로 출원한다.
- ③ 유럽地域은 EPC루트로 출원하고 美國은 各國別루트로 출원한다.
- ④ 유럽에 있어서는 EPC로 출원하고 美國은 PCT에 의한다.

어떤 루트가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은 출원의 목적과 지역, 국가의 數에 따라 달하므로 한결같지 않다.

그러나 출원비용면에서 보면 4개국 이상, 출원할 경우에는 각국 루트보다도 PCT루트편이 싸며 또한 유럽지역에 출원할 경우에는 그것이 4개국 이상이면 各國別루트보다도 EPC루트편이 싸다고 한다.

日本으로부터의 국제출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美國과 유럽지역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유럽지역은 EPC루트, 美國은 PCT루트나 각국별루트가 가장 잘 이용되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擔當者로서는 國際事務局에서 1年 6個月후에 나오는 國際公開公報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인데 국제출원을 하는 것은 그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提出書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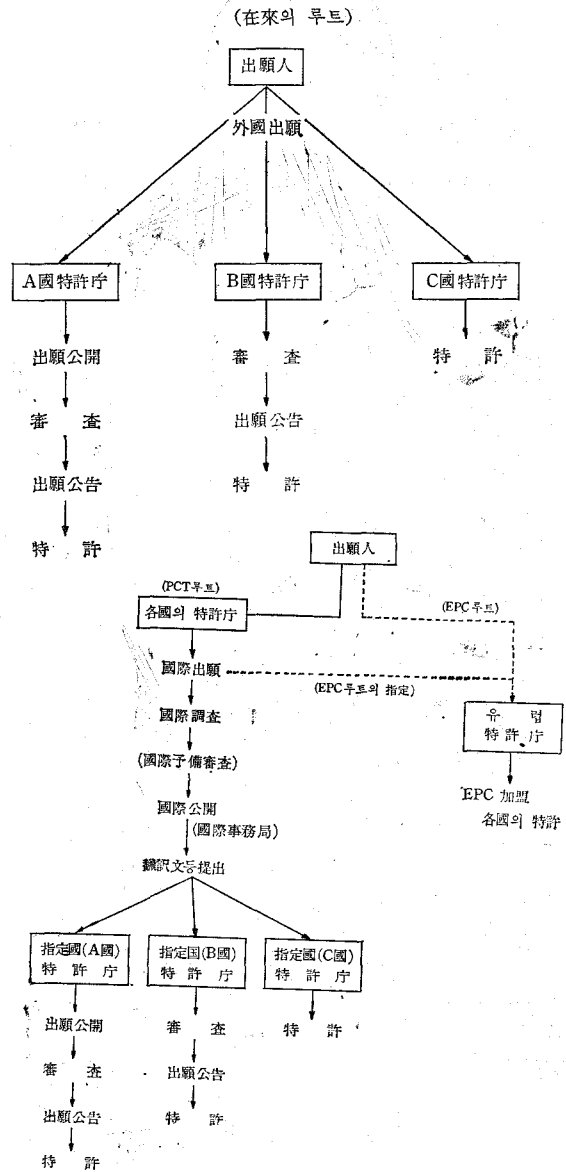
出願書, 明細書, 請求範圍를 記錄한 書類, 必要한 圖面,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各各 別途의 書面으로 作成해야 한다.

(出願料金)

국제출원의 手數料는 國庫에 納入하는 것과 國際事務局에 납입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국제사무국에 납입하는 것은 基本手數와 指定手數料이다.

國際特許出願의 節次圖



기본수수료는 用紙의 枚數가 30枚 以內의 경우에는 165弗, 30枚를 넘을 경우에는 1매에 대해서 3弗 이 追加되는데 이를 국제출원으로부터 1개월 以內에 납입한다.

또한 指定手數料는 국제출원의 指定國, 1個國마다 40弗 든다. ♣

